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표준 발음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물[국물] ② 물약[무약]
③ 백로[백노] ④ 혼례[홀네]

2. 다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① 물난리 ② 바느질
③ 부엌일 ④ 헛웃음

3.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그는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하였다.
② 말과 행동은 결코 일치해야 한다.
③ 오늘은 운동과 그림을 그리기로 하자.
④ 고객님의 주문하신 상품은 품질되었습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랏·말·쑈·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民·중·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몸·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땡·ᄃ·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부·매 便·便·安·안·크 히·고·져
홀 썩·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본 어제 서문 -

4. ㉠~㉣의 문맥상 의미를 현대 국어로 바르게 활용한 것은?

- ① ㉠: 이곳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달라 비가 많이 온다.
② ㉡: 진정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
③ ㉢: 산속 공기가 맑으니 상쾌한 기분이 들어.
④ ㉣: 우리 편이 상대방을 이겨 기분이 좋아.

5. 윗글에 나타난 표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다.
②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다.
③ 주격 조사인 '가'가 쓰였다.
④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¹⁾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1) 나타(懶惰): 나태.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6.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법이 나타난다.
② 특정 시어가 반복된다.
③ 현재형 종결 어미가 나타난다.
④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7. 다음 설명의 밑줄 친 부분과 성격이 다른 것은?

이 작품은 폭포를 통해 부정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와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곧은 소리
② 나타와 안정
③ 규정할 수 없는 물결
④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8.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는 '폭포'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는군.
② 3연에서는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유발하는군.
③ 4연에서는 '폭포'의 선구자적인 모습이 드러나는군.
④ 5연에서는 '떨어진다'는 시어를 통해 폭포의 정적(靜的)인 모습이 드러나는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잡스와 두어리마는

㉢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 출하리 물ᄃ의 가 비 길히나 보자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¹⁾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²⁾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침(茅簷)³⁾ 춘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⁴⁾ 은 늘 위호야 불갓느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⁵⁾ 바니니⁶⁾

저근덧 역진(力盡)호야 풋좁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ᄃ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므옴의 머근 말숨 슬크장⁷⁾ 솟자⁸⁾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호며

정(情)을 못다호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⁹⁾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씨뒹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쏜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¹⁰⁾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1) 어둥정: 어리둥절. 어수선하게.

2) 디는: 지는.

3) 모침(茅簷): 띠로 지붕을 이은 초가.

4) 반벽청등(半壁靑燈): 벽 가운데 달린 등불.

5) 헤쓰며: 마음이 초조하여 허둥거리며.

6) 바니니: 부질없이 왔다갔다 하니.

7) 슬크장: 실컷.

8) 솟자: 사뵈려고. 아뵈려고.

9) 오던된: 방정맞은.

10) 식여디여: 죽어서.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활용하고 있다.
- ④ 자연경관을 제시한 후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10. (가)에서 화자가 임을 보내 주려는 이유가 드러난 부분은?

- ① ㉠ ② ㉡ ③ ㉢ ④ ㉣

11.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썸’ 속에서 임을 보았다.
- ② ‘물ᄃ’에서 사공을 만났다.
- ③ ‘강턴(江天)’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 ④ ‘낙월(落月)’이라도 되어 임 계신 곳을 비추고 싶어 한다.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장소가 드러난다.
- ② 일정한 후렴구가 반복된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타난다.
- ④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짜 명품을 지칭하는 ‘짜퉁’이라는 말은 일부 사전에도 ㉠ 등재되어 있다. ㉡ 비록 분명한 사실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뉴스 진행자가 ‘짜퉁’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 굳이 뉴스에 서까지 연예인 소식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 물론 뉴스 진행자는 ㉣ 쓰여진 뉴스 대본대로 읽었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한국어의 어휘에는 ‘짜퉁’이라는 속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모조품, 유사품, 복제품 등 ‘짜퉁’이라는 속어를 대신할 표준어가 많다.

13.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등기’로 고친다.
- ② ㉡은 앞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여 ‘그런데’로 고친다.
- ③ ㉢은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므로 삭제한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었으므로 ‘쓰인’으로 고친다.

14. 윗글에 이어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글의 주제를 드러낼 것
- 대구법을 활용할 것

- ① 바른 언어생활은 표준어 사용에서 시작된다.
- ② 속어 사용을 지양하고 표준어 사용을 지향하자.
- ③ 일상에서 속어 사용을 늘리면 친근감이 형성된다.
- ④ 친구끼리 사용하는 속어는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선(旌善) 고을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군수(郡守)가 새로 도임(到任)하게 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오두막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해마다 쌓여서 그 빚이 일천 섬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하면서 환곡 출납을 조사해 보고 크게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미를 축냈단 말인가?”

하고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보상을 할 길이 없음을 ㉠ 내심 안타깝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으나, 그 역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양반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있으니,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며,

“당신은 평소에도 그렇게도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A] 현관(縣官)¹⁾에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이라 했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식구들과 상의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는 신세다.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이만저만 군옥(窘辱)²⁾을 보고 있지 않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하지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가져 보자.”

하고서 그 집 문에 나아가 그 환곡을 갚아 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반색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부자는 당장에 그 환곡을 관에 바쳤다. 군수가 크게 놀라 웬일인가 하며 그 양반을 위로도 할 겸 어떻게 해서 환곡을 갚게 되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그 양반이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 아뢰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 붙들며,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욕되게 하시오?”

- 박지원, 「양반전」 -

1) 현관(縣官): 현(縣)의 우두머리인 현령과 현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여기에서는 정선 군수를 가리킨다.

2) 군옥(窘辱):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매우 참기 힘든 일.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반이 있었다.
- ②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일이 있었다.
- ③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 주었다.
- ④ 양반이 아니라도 돈이 많으면 귀한 대접을 받았다.

16. [A]에서 ‘아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반은 글 읽기를 잘해야 체면이 서는 법이다.
- ②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하지 말고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
- ③ 양반의 가치가 한 푼이 안 된다니 세상인심이 야박해졌다.
- ④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고 공부만 하는 양반은 쓸모가 없다.

17. ㉠에 드러난 ‘군수’의 심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분기탱천(憤氣撐天)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 ③ 측은지심(惻隱之心)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의 자전축이 23.5°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해는 여름에 높이 뜨고 겨울에 낮게 뜬다. 땅 위에 서 있는 집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름에는 햇빛이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히고 겨울에는 낮은 각도로 완만하게 비춘다. 한옥은 햇빛을 다스리기 위해 여름과 겨울의 햇빛이 처마와 만나 이루는 각도의 중간 지점에 창을 낸다. 여름에 귀찮은 햇빛을 물리치고 겨울에는 고마운 햇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햇빛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붕 처마를 적절히 돌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는 처마가 햇빛을 막아 튕겨 내고 겨울에는 햇빛을 통과시킨다. 다른 하나는 방의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특히 추운 겨울, 처마를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방을 깊지 않게 짓는다. 덕분에 햇빛이 방 끝까지 기분 좋게 들어오고, 난방과 소독에도 일조한다.

<중략>

한옥은 바람의 집이기도 하다. 한반도 여름에는 남동풍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분다. 우리 조상들은 바람이 절실히 필요한 여름을 위해 한옥에 남동 방향으로 바람길을 만들었다.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通)’ 크게 나 있다. 약간의 인색함도, 머뭇거림도 없이 집의 끝에서 끝까지 일직선으로 뚫려 있다. 바람보고 돌아가라거나 쉬어 가라거나 꺾어 가라거나 하는 따위의 실례를 범하는 법이 절대 없다.

또한 바람길은 하나가 아니다. 이쪽에서 바람길, 저쪽에서 바람길이다. x축과 y축이 이루는 십(十)자 구도를 기본으로 여러 개의 사선이 교차한다. 한옥의 바람길을 열어 주는 것은 창과 문이다. 한옥의 창문은 아무렇게나 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창문만 선으로 연결하면 꼬치에 낀 산적 처럼 한 줄로 늘어선다. 창·문의 위치가 모두 일직선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 임석재, 「지혜가 담긴 집 한옥」 -

18. 윗글에 언급된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햇빛이 대청과 만나는 지점에 창을 낸다.
- ② 겨울철 햇빛은 한옥의 난방과 소독에 일조한다.
- ③ 지붕 처마를 적절히 돌출시켜 햇빛을 조절한다.
- ④ 추운 겨울,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방을 깊지 않게 짓는다.

1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옥과 양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한옥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지역에 따른 한옥의 크기를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④ 햇빛과 바람을 고려한 한옥 구조의 원리를 분석하고 있다.

20. 다음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옥을 지을 때 여름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① 바람길을 이리저리 꺾는다.
- ② 창과 문의 개수를 일치시킨다.
- ③ 남서쪽으로만 바람길을 만든다.
- ④ 바람길이 생기도록 창과 문을 낸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의사가 된 아들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농토를 팔려는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온다. 아버지는 나무다리가 새로 놓인 뒤 동네 사람들에게 잊혀가던 돌다리를 고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얍한¹⁾ 것, 얍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 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첩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A]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²⁾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 이태준, 「돌다리」 -

1) 얍하다(廉--): 값이 싸다.

2) 천잘: 천자문을.

21. 윗글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아닌 것은?

- ① 병원에 오는 환자가 줄고 있다.
- ② 나중이라도 좋은 땅을 다시 살 수 있다.
- ③ 마침 병원으로 쓰기에 적당한 건물이 나왔다.
- ④ 땅보다 병원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자신이 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봐 왔다.
- ② ㉠을 고치는 것에 대해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이 같다.
- ③ ㉡에는 아버지의 애정이 깃들어 있다.
- ④ ㉡으로 인해 마을 장정들과 아들이 갈등하고 있다.

23. 다음을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근대적 가치관이 확산된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근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와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 ① 장정 수십 명이 다리를 고침으로써 서구 자본주의 문화를 확산시켰다.
- ② 의사가 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게 되었다.
- ③ 아버지가 그 다리를 고치는 이유는 근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 ④ 땅을 팔기를 원하는 아들과 서울로 갈 생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난다.

24. [A]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서 묻어 줘.’
- ② ‘그 다리가 좋긴 해도 나무다리만 못해.’
- ③ ‘그 다리에 내 지나 온 삶의 추억이 담겨 있어.’
- ④ ‘요즘 사람들은 사물에도 인정이 깃들어 있다는 걸 몰라.’

25. [A]의 밑줄 친 부분과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날이 장날이다.
- ②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새 도랑 내지 말고 옛 도랑 메우지 말라.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